

재속 프란치스코회 퀸퀴니얼

2022 년 8 월 6 일, 토요일

발표자: Marion Clorey, ofs

(슬라이드: 생활지침 (Memoriale Propositi) 부터 현재의 회칙 까지 - 800 여년의 걸친
복음적 생활의 삶을 살기)

평화와 기쁨을 캐나다에서 보냅니다!

아시시 주변의 언덕과 계곡을 프란치스코가 거닌 후 지난 800 여년 동안에 그의 생활 양식이 계속해서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회들에게 관련성이 있다는 것에 저는 놀랍니다. 우리가 노래하였듯이 이런 생활 양식을 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 이 현재의 회칙과 어떻게 비교 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1221 년의 회칙 이후 800 년 하고 1 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ciofs.info/wp-content/uploads/2021/09/EN-Memoriale-propositi-3rd-Contribution_September-2021.pdf 참조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에 있는 어떤 구절들은 우리 귀에 약간 생소 하게 들린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양식의 바탕이 되는 주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고 1978 년에 공포된 현재의 회칙안에 분명하게 반복된다. 이탈리아의 Attilio Galimberti, O.F.S. 형제는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의 가치를 오늘날의 맥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성찰에서, 그것은 우리 재속회의 길에 연속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일이 끝난 후에도 이 보물을 잊어버리면 안된다고 하였다.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 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목적 (project of life) 또는 인생의 목적을 위한 문서 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Doug 은 말했다. 내가 캐나다에서 프랑수아어권 형제자매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쁘로제드비 (projet de vie)" "인생의 목적 (project of life)"에 대해 자주 말 하였다. 우리가 생활 양식으로 우리의

회칙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 말 할 때, 그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즉 회칙을 따르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았다.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서의 나의 지상 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목적 (project)은 시작, 중간 및 끝이 있다. 내가 어떻게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하고, 지금 나는 중간 단계에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완료되는 날이나 시간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자매인 죽음이 올 것을 알고 있다.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의 8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CIOFS 는 짧은 비디오 시리즈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Bob Stronach 형제 가 이 프로젝트에 매우 많이 참여했다. 그들은 생활 지침 (Memorial Propositi)과 현재의 회칙에 공통된 많은 주제를 확인했다. 나는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을 따라서 내 인생의 프로젝트를 살아간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

(슬라이드: 형제회)

첫 주제는 "**형제회**"이다. 모임의 중요성이 두문서에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은 제 19 조에서 "모든 도시와 장소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매달 모여야 한다". 어디서 들어본 것같이 않아요? 물론 들어봤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 회칙에서 제 13 조와 제 24 조는 "공동체의 의식이 그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평의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교를 촉진하기 위해 형제회의 정기적인 집회와 빈번한 만남을 가진다" 라고 한다.

제가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이끌린 것은 형제회다. 대학교때에는 카리스마적의 쇠신 모임에 참여하였지만 졸업 후의 나의 삶에는 공동체의 의식이 없었다. Doug 하고 저는 여러 공동체를 답사했지만 결국 우리는 재속 프란치스코회로 인도되었다.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읽고 나는 그와 연결됨을 느꼈다. "형제들이여,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형제회의 시초에 대한 그의 설명이 나에게 와 닿았다. 몬트리알에 있는 좋은 분들이 우리들의 시작을 도와주었고 모임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셨다.

관심을 가진 다른 많은 분들이 가까이 살고 계셨고, 또 이미 종신 서약을 하시고 Prince Edward Island 로 이사 온 두 분도 계셨다.

우리 단위 형제회는 1987 년에 시작했고 35 년동안 우리를 위한 닳이 되고 있다! 우리 또한 국가적인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1995 년 Doug 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일 하러 갔을 때가 기억난다. 그 때 나는 그가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할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단위 형제회의 연로하신 자매 한 분이 “그 곳에 재속 프란치스칸들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나는 “네, 있어요” 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러면 괜찮아요. 그는 가족과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옳았다! 4 개월 후가 나와 아이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벌써 캔버라의 한 단위 형제회에 소속되어 열심히 잘 하고 있었고 피정도 다녀왔다.

최근에 우리는 국가 선거 총회를 캐나다에서 개최했고 여러분의 국가 형제회의 Mary Stronach 총 부회장이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다. Mary 가 불어로 불어권의 형제자매들과 소통하여 인기 가 많았다.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의 노래처럼, 우리는 참으로 글로벌 가족이다.

(슬라이드: 단순함)

소박한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의 제 1 조에서 3 조는 이것에 대해 다소 규정적이다: 형제들은 물들이지 않은 천으로 겸손하게 만든 옷을 입을 것이고 자매들도 겸손하게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보기 흉한 파티나 댄스 파티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 초기양성 때에 초기양성자 중의 한 명이 춤추기를 좋아하는데 그가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게 기억이 난다. 우리의 양성장은 이규정은 더 이상 유효 하지 않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여러분의 형제회는 어떻게 모르지만, 우리 형제회의 많은 형제 자매들은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현재의 우리 회칙의 제 11 조는 소박한 생활에 대해서 알려준다. 물질적 욕구를 줄임으로써 우리를 현세의 재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우리의 필수품을 간소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일시적인 물건에서 벗어나게 한다. “겸손하게 살아서 다른 이들도 살수 있도록...”이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안다. 어쩌면 어머니신 지구가 우리들 중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압박을 많이 받는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Laudato Si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지적하였듯이 땅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최근에 우리 단위형제회의 정평창보(JPIC) 팀은

우리가 더 검소하게 살고, 제 15 조가 제시하는 것처럼 정의를 촉진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국제 총봉사자 Tibor Kauser 는 우리가 재속회원으로서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저의 단위형제회 회장은 그녀가 살고 있는 town 의 시장이다. 그녀는 그녀의 믿음과 조화된 선택을 함으로써 재속회원의 좋은 모범이다

(슬라이드: 가족)

가족의 중요성이 두 회칙안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다.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의 제 18 조는 회원들이 그들의 가정을 지키고 하느님을 섬기도록 한다. '회원은 가정안에서 평화와 성실, 생명 존중의 프란치스코 정신을 살아, 그리스도안에서 쇄신된 세상의 표지가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우리의 현재 회칙 제 17 조는 말한다.

하느님을 섬기기위해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지키는가? 우리의 성인 자식들과 그들의 배우자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긴다. 하지만 현재에 그들의 방법에는 그들이 자주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정의와 창조물의 보존이라는 숭선 시범을 통해 더 좋은 세계를 만들고 있다. Franciscan Action Network (FAN) 소속의 Michelle 과 Toby 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 가족안에서 우리만의 프란치스칸적의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안에서 구원받은 세상의 표징이라면 가족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에게 있어 그곳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차이점을 헤쳐 나가는 곳, 서로를 존중하고 화해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와 더 큰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데 단결하는 곳이 될 것이다. 회원들은 서로에게 충실하고 마음 속에 있는 하느님의 작은 목소리에 충실할 것입니다.

(슬라이드: 화해)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의 제 15 조에서는 **화해**의 주제가 대부분 지시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백성사는 얼마나 자주 봐야 되고, 언제 성체 성사를 해야 되는가를

지정하고, 이웃과 화해하도록 한다. 화해에 대해 현재의 회칙 제 7 조는 인간의 나약성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구절은 나에게 기쁨을 줬고 나를 재속 프란치스칸이 되게 하였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내자신과 화해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내가 올바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목요일의 성찰 질문은 우리에게 회심의 경험을 염두에 두도록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온 것은 우리 형제회와 인연을 맺게 된 길거리 사람과의 시간이었다.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회에는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다. Jimmy 가 그들 중의 한 명인데 형제회 파티때에는 그는 항상 나를 그의 고정 댄스 파트너로 뽑곤 했다. Jimmy 에게는 냄새가 많이 났고, 처음에 나는 그것이 굉장히 괴로웠다. Jimmy 가 악취가 풍기는 옷을 입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 나의 역겨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Jimmy 는 내가 길거리 사람들과 더 편안해지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죽었고, 그는 계속해서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몇 년 전에는 원주민 형제 자매들과의 화해를 위해 내가 일을 해야 하는 도전이 있었다.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캐나다를 순례 방문하셨을 때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기숙 학교에서 원주민에 저지른 악행에 대해 사과를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용서를 청하는 것은 치유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하셨다. 캐나다에 있는 재속 프란치스칸으로써 우리는 치유의 여정이 계속되게 원주민 형제 자매들과 동맹자가 되어야 한다.

(슬라이드: 기도)

기도의 주제는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의 제 7 조와 제 12 조에서 다루고 있다.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과 성무일도 바치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우리 회칙 제 8 조는 전례기도와 성사생활, 특히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을 조성한다. 현재의 회칙 제 8 조에 있는 "기도와 관상이 자신의 온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구절을 나는 좋아한다. 우리에게 데살로니카 전서 5 장 17 절은 "늘 기도하십시오" 라고 한다. 내가 카운슬러로 일했을 때 나는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겼다. 나는 전에 그리고

종종 세션 중에 기도할 것입니다 - "고통을 받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와 함께 하소서".

기도와 관상은 회답을 요구한다. 기도없이 하는 행동은, 비록 의도는 좋았지만, 더 반응적에 가까울 수 있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돌이켜 보면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 하느님의 존재를 주입 받은 경험이 있었다. 명상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가장 어린 기억 중 하나는 나의 언니와 오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학교에 가고 싶었다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나는 6살이 되어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곳에 있는 게 정말 기뻐다. 나는 어느 날 방과 후에 혼자 보도에 있었고 그 보도에서 주위를 건너 뛰었던 그런 기쁨을 느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나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불구자 같았는데, 베드로가 그를 치료한 후 걷고 뛰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나중에 어린시절의 이 경험이 책임감과 함께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저의 대답은 교육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수준의 교사로서 대학 카운슬러 및 가정 생활 교육자로서 말이다.

(슬라이드: 평화)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주제는 **평화**이다. 생활 지침 (Memoriale Propositi)은 제 26 조에서 형제자매들 및 비회원들과의 평화를 촉구합니다. 회원을 비폭력으로 촉구하는 제 16 조는 회원들이 무기 소지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회칙 제 19 조는 우리가 "평화의 전달자"가 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화합의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한다. 비회원들과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이 떠오른다. David Couturier 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에게 배려하는 만남을 갖도록 격려한 것을 상기시켰다. 내가 보기에 프란치스코와 술탄의 만남은 그 예였던 것 같다. 우리는 요? 우리는 어떻게 배려하는 만남에 참여하는가? 우리는 길거리 사람들의 눈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가?

우리의 자매 Carolyn Townes 의 프란치스코 평화 12 주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Claude Thomas 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했다 "상상해봐, 만약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전쟁을

멈춘다면 “전쟁을 일으킬 씨앗은 없을 것이다”. 성찬식 때 신자들의 기도에서, 우리는 종종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분쟁의 종식을 기도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휴식 속에서 자라는 전쟁의 씨앗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웃에 대해 비판적일 때, 내 봉사에 대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을 때 –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분노와 원망의 시작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용서의 힘으로 그런 생각들을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물론 매일의 회심과 기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신성한 씨앗의 존재를 믿는다.

(슬라이드: 희년! 선택을 기뻐하라)

여러분과 함께 희년의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강연의 전체 주제는 “선택의 기쁨” 입니다. Doug 와 나는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종신 서약한 회원이 되도록 하고, 여러분 같은 형제 자매들을 가지게 한 선택을 기뻐한다. 프란치스코가 그의 추종자들에 말 하신 것은 아주 단순하다 “가서 복음을 사십시오” 우리의 회칙은 우리가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Mary Bittner 가 그녀의 워크샵에서 지적하였 듯이, 이것의 중요한 측면은 형제적인 영적 교감이다.

프란치스코의 삶은 형제회, 기도 그리고 우리가 방금 생각 해냈던 모든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의 총합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는 교회안에 있는 글로벌 영적가족의 일부이다. 우리는 최근에 PEI 에서 일주일 휴가를 보낸 몇 명의 수사들과 함께 했었다. 그들은 우리 집 해안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친목을 도모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 내가 그들의 사목을 공유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우리가 어떻게 모두 같은 프란치스코 가족의 일원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한다. Bishop Stowe 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보조자가 아니다. 우리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은 프란치스코의 가족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내가 미래를 볼 때, 하느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제 난 은퇴했으니 나의 열망은 Arya, Calista 와 Danny 의 풀타임 할머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 든

회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하느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느님께서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일어서 주세요.

(슬라이드: 성령이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